

소록도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정원박물관 설계

전진현* · 조경진**

*(주)신화컨설팅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친환경’, ‘생태’ 등의 키워드가 이미 대중에게까지 친숙할 만큼 그것들이 주요 이슈로 부상 한 것은 이미 오랜 전 일이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려는 관점은 이제 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자세 중 하나이다. 자연과 인간의 이원론 구조가 파괴된 현시점에서 정원은 인간의 삶과 조응하는 자연이 되기 위한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첫째로, 정원은 원생의 자연에 인간이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문화화한 자연이다. 정원술은 자연을 정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을 인공과 관계 맺도록 하는 적절한 공간적 반영으로 현대에 들어 주목받고 있으며, 사적영역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공간의 쓰임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간설계의 한 방안이다. 둘째로 정원은 자연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게 해주는 장치이다. 그것은 다른 오픈스페이스 시설에 비하여 더욱 가까이서 자연을 접하고 공감각적 경험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셋째로 정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감성을 자극시키기에 매우 용이한 매체이다. 정원은 신화적 이야기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오감과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현대는 ‘사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이다. 조경진은 ‘이성과 감성 사이의 이미지문화, 도시와 농촌 사이의 메트로폴리탄 문화... (중략) ...건축과 자연 사이의 정원과 경관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는 것이 우리시대의 상황(조경진, 1997)’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이’에 정원이 속해 있다고 언급한다.

정원이 문화와 자연이 충돌하고 융화되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정원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국내의 현 상황에도 반영되어 2013년에는 순천 국제 정원박람회가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2010년 10월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시흥 옥구공원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류를 좇아 현대의 바람직한 공간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정원에 주목한다. 연구의 대상지인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한 면적 440만²의 섬으로, 일제강점기 나병환자들의 강제 격리장소였다. 당시 축조된 근대 산업유산은 그 시대의 아픔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흔적은 정원을 매개로 보존됨과 동시에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리를 전개한다.

II. 근대산업유산 및 정원박물관

1. 근대산업유산의 개념

근대산업유산은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 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기념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문화적 소산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다(문화재청, 2001). 실상 근대 산업유산의 개념은 역사가마다 다른 ‘근대 산업기’라는 시대에 기인하므로 그 자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고, 보존과 관련된 법적 장치와 규정들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강동진 등, 2003). 이는 등록·지정 제도라는 법적 장치를 바탕으로 한 근대 문화유산의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대산업유산은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로 ‘근대’라는 특정 시간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에 대한 체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개물이다. 이는 근대산업유산이 시간의 예술인 정원과 대비, 병치, 중첩되며 적절히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정원박물관

1) 정원의 개념

정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의미 역시 상당히 광의적이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정원이란 자연을 소재로 하여 인간이 만든 작품으로서 주로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외부공간이다. 그것은 대체로 담장 혹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그 자체가 미적 통일체로서 이용과 감상을 위하여 가꾸고 다듬어 놓은 것이다. 또한 정원은 대체로 주제가 있다.

정원이 다른 유형의 장소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안식과 치유의 목적이 강조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성서에 등장하는 에덴 정원은 광란과 소란으로부터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이다. 이러한 낙원의 이미지가 현실의 정원공간에 투영된 것이 에덴 정원을 모델로 한 중세 유럽의 수도원 정원이었다. 안

식처로써 정원의 예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버트 해리슨(Robert Pogue Harrison)은 그의 저서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에서 일시적 정원(transitory garden)을 언급한다. 일시적 정원은 뉴욕의 노숙자들이 그들만의 경계를 만들며 비록 일시적일지언정 스스로에게 필요한 휴식의 장소로써 만든 정원이다. 이렇듯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인식하고자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호한 환경의 한부분에 평정을 주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로버트 해리슨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야 축복다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추방 후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때가 되면 열매나 의도한 결과물을 거둔다.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있었지만, 추방 후에는 모든 것을 위해 인간이 있게 되었다(Harrison, 2008). 그는 모든 것을 가꾸는 정원사이고 그 정원사에게는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한 사랑이 생겨났다. 이제 정원은 세상과 연결된 인식처이자 도피처이다. 그곳은 공동체적인 가치가 배양되어 있는 곳으로 무엇인가를 보살피는 곳이자 보살핌을 받고 아픔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곳이다.

2) 정원박물관(Garden Museum)의 개념

현재 정원박물관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사례에 따라 영어 표기도 공식적인 것이 없이 다양화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Garden Museum, The House of Gardening, Museum of Garden 등으로 표현된다.

이들의 일반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전시의 역할로서, 이곳에는 여러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정원, 그리고 관련된 소품들이 전시된다. 전시품들은 정원의 역사와 문화를 표상하는 역할을 하며, 독특하고 특이하고 기념비적인 것들 즉, '전시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선별되어 전시된다. 둘째, 교육의 역할로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정원 만들기를 배우고 정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육'은 '전시'가 필요불가분하게 수반하게 되는 부산물이고, 박물관은 교육적 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시설물이다. 정원박물관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기능이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체화되어 박물관 프로그램의 일부로 도입된다.

용어 사용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정원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설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모든 시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3. 소록도의 근대산업유산과 정원

비극적 역사를 근대산업유산이라는 흔적을 통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소록도라는 아픔의 땅은 정원을 매개로 인식과 치유의 땅이라는 보다 의미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

대상지 내 정원이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정원이라는 유기체의 집합은 끊임없는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소록도라는 상흔의 땅에 시간을 두고 정원을 가꾸으로써 과거를 기억함과 정신적 치유를 병행할 수 있다. 정원이 보살핌의 행위를 통해 어두운 역사를 감추지 않고 동시에 부정적 분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시설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정체성의 부여가 요구되는 이 땅에 그것이 적절히 작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로 정원은 현재의 소록도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 공간적 내러티브에 예술적 요소로써 작용하여 멜랑콜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구로, 소록도에 남아있는 불용공간을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는 격물로써 활용케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소록도는 대한민국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수종의 생육이 가능하고, 오랜 시간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탓에 한국의 특산식물과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 등이 풍부히 현존하여 다양한 식물소재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III.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정원박물관 설계

1. 설계의 조건

1) 육지와와의 소통

2009년 소록대교 완공과 2011년으로 예정된 거금대교의 건설로 소록도는 이제 여수, 순천, 목포 등의 도시들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으며 소록도의 방문객 수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풍부한 생태자원과 기후조건

대상지의 연중 온난한 기후는 남부수종의 생육조건을 만족시키며 국내 어느 지역 보다 다양한 식물수종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다.

3) 풍부한 근대문화유산 및 산업유산

대상지에는 전국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317개소 중 10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소록도가 근대 역사의 흔적을 생생히 담아내고 있는 장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4) 관광인프라의 활용 가능성

대상지의 감금실과 검시실 등 일제 강점기 아픔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건물들을 구경하기위한 관광객의 수는 끊임없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 설계대상지 선정

440만²m²이라는 방대한 면적 중 정원박물관 설계 대상지선정 기준에 따른 장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지선정

개발 대상지선정 기준	선정 후보지
역사경관 형성이 용이한 곳 - 근대문화유산 중심 - 오래된 역사구조물 중심	근대문화유산 10개소와 산업유산, 적산가옥, 폐허
건축물 자체의 역사적 형태적(미적)가치 - 미적가치, 규모, 희소성	구)소록도 갯생원 식량창고
해안경관 활용 가능성	해안경관 활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산업유산
기존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성	관광지와 가까이 있는 근대산업유산
접근성 - 기존동선 이용 가능성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근대산업유산
지형 - 경사가 완만한 곳	경사도 10% 이하



그림 1. 대상지선정 후보지

3. 설계전략

역사성과 장소성이 살아있고 주변맥락과 소통하는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정원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설계에서 제안하는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정원을 활용하여 도(圖, 인공)와 지(地, 자연)를 연결
본 설계의 주안점은 인공 시설물인 근대산업유산과 식물소재로 이루어진 정원의 관계를 적절히 규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풍부한 산업유산과 기타 역사의 흔적들로 강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대상지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절히 도입하기 위하여 각 공간에 맞는 주제를 가진 정원을 활용한다.

2) 대상지 주변의 해변과 숲을 축으로 연결, 활용

대상지는 남북으로 바다와 면해있고 동서로는 각각 관광자원과 자연림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정원박물관을 육지와 차별화된 시설물로 만들기 위한 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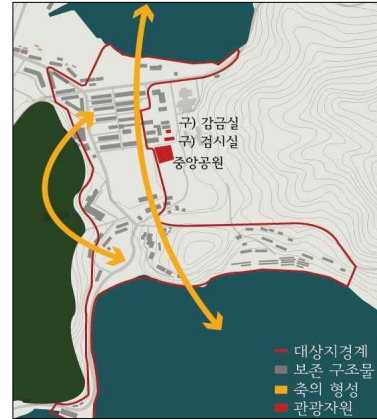


그림 2. 설계전략과 대상지현황

중 하나로, 대상지와 면한 해양 자원을 이용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해변과 숲으로 이용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도서생태를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정원박물관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3) 원지형과 동선을 존중하고 현황 구조물 활용

프로그램과 시설에 맞추어 지형과 동선을 변형시키기보다는 현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설계의 큰 틀을 구성한다. 또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대상지의 구조물들은 대상지 전반에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는 요소이자 본 설계의 주요 주제가 되는 것들 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실내프로그램을 도입한다.

4) 동선연결, 중앙공원의 공유

대상지의 관광지(감시실, 감금실, 중앙공원 등)는 소록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대부분을 모으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광수요가 정원박물관의 수요에도 영향을 끼칠 여지가 높으며, 기존의 시설과 신설되는 시설이 긴밀히 연계됨으로써 상호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특히, 100여종의 관상수가 식재되어있는 중앙공원은 정원박물관의 옥외공간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정원박물관 설계

대상지는 크게 네 부분의 다른 성격을 지닌다. 첫째, 본 시설물의 주된 활동인 전시, 관람의 기능에서부터 판매 등의 상업적이고 동적인 활동을 담고 있는 중심활동지구, 둘째, 정원박물관의 콘텐츠와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며 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정원들이 구성된 정원지구, 셋째, 식물소재와 산업유산의 잔재를 통해 경관을 체험하는 경관지구, 마지막으로 식물종 보존과 연구, 관리, 재배 등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연구·관리지구가 그것이다.

1) 중심활동지구

중심활동지구는 비교적 높은 밀도로 시설물이 들어차 있어, 관람객이 입구로 진입하여 정원박물관의 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기 쉽도록 하였다. 기존의 격자형으로 배치된 건물들 13개소의 건물들 중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8개소만 남기고 나머지를 격자형 정원과 수변공간으로 구성한다.

2) 정원지구

중심활동지구의 정원박물관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정원으로 구성한다. 기존의 평평한 공터를 생태습지로 조성하고, 대상지 내에서 유일하게 지형의 기복이 크게 생기는 곳의 단차¹⁾를 이용하여 암석을 활용한 위가든을 조성한다.

3) 경관지구

체험이 가장 극에 달하는 구역이다. 높은 지형을 이용하여 조망점을 설정하고,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폐허들을 조경설계의 격물로 이용하여 시간의 흔적이 담겨있는 정원을 조성한다. 수평적 해양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망공간을 구성한다.

4) 연구·관리지구

일반 이용객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에서 비교적 격리되어 있지만, 관리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 재배온실의 경우 비교적 일반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I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보존방안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근대의 잔존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독특한 역사를 가진 땅에 장소성을 부여하며 그곳의 기구한 역사를 환기시키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상지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근대 산업유산이라는 건축적 경관을 해석함으로써 정원을 매체로 그에 적절히 반응하는 공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산업유산에 조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원을 도입하여 풍성한 미적 체험의 장을 제시하고, 자생식물 보전의 생태적 기능의 기틀을 마련하며 새로운 형태의 어메니티로써 의 공간을 제시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물이나 폐산업단지과 같은 공간에 기능적 융통성과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작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붉은 벽돌로 대표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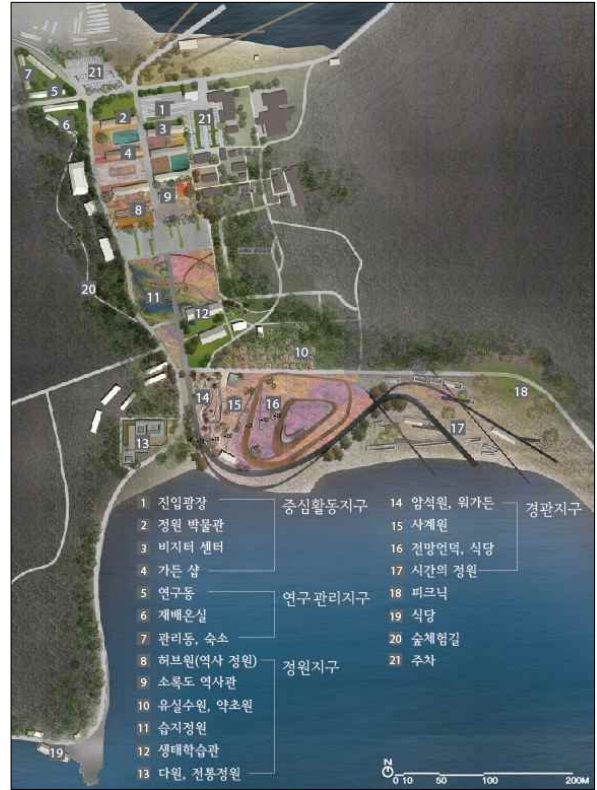


그림 3. 설계안 마스터플랜

근대 시설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대적 기능을 부여하는 재생작업은 복원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일상의 터전을 거대한 스케일에서 다루는 도시설계, 현대 옥외설계의 주류가 되고 있는 공원설계 등에 밀려, 그것들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신화적 상상력의 보고가 될 수 있는 정원에 주목하여 그것이 현 시점에서 자연과 인공의 또 다른 만남 제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 1. 대상지는 대부분 평탄한 대지로 이루어져있고 남단에 해발 38m의 언덕이 형성되어 있다.

인용문헌

1. 강동진, 이석환, 최동식(2003)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존방법 분석,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8(2): 7-20.
2.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p. 6.
3. 조경진(1997) 조경과건축: 그 새로운 가능성을 위하여. 이상건축 6: 151.
4. Robert Pogue Harrison(2008)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